



“금속노조 7월 12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26일 기자회견, 총파업·투쟁계획 발표 ... “정권 무책임·무능·독선 겨냥 경고다”

금속노조가 7월 12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걸고 총파업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6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노조 4층 회의실에서 ‘노동기본권, 민중생존권 쟁취,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노조 7.12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퇴진 총파업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선언한 7월 총파업 투쟁의 일환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 20일 금속노조 투쟁본부 13차 대표자회의·5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월 12일 모든 조합원이 주야 2시간 이상 파업에 나선다’라는 7.12 총파업 방침을 결정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전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다”라며 “노동·민생·민주·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체 민중과 손을 잡고 거대한 민중항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7월 12일 총파업과 더불어 ▲7월 5일 확대간부 이상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참가 ▲7월 15일 확대간부 이상 범국민대회 상경투쟁 ▲7월 4일, 7일, 11일, 14일 퇴근 후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에 조합원과 가족 참가 투쟁 계획을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이대로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폭정을 멈추지 않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절체절명의 정세에 총파업으로 맞서고자 한다”라며 “7월 총파업이 각계각층 전 민중의 공분을 모아, 촛불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현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기자회견 투쟁사를 통해 “44,000여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대표해, 현대자동차 내부 노사 문제가 아닌 이유로 이 자리에서 파업을

선언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 독선에 대한 노동자들의 선택이자 경고다”라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과 안석태 경남지부장은 각각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노조 대상 경찰폭력 사태와 공안탄압,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 등 탄압 상황을 열거하고, 금속노조가 7월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금속노조 투쟁본부 대표자들은 “금속노조는 오늘 윤석열 정권 퇴진이 민주주의임을 밝힌다”라면서 “금속노조는 민주노조 운동의 도약, 억압과 차별이 사라진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의 소명을 걸고 광장에 푸른 들불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민주노총 파업이 초래할 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노동자들의 화를 돋웠다.

“신일정밀지회가 불법 노조파괴 저지 앞장선다”

지회, 민씨 일가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입장 발표 ... “신일정밀지회가 든든한 선례, 증거 확보 관건”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자본가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범죄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6월 21일 신일정밀 전 경영진 민씨 일가와 범죄 하수인들에게 각각 민신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봉사 240시간, 민성기 벌금 1,000만 원, 최종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봉사 200시간, 이강훈 노무사 벌금 1,500만 원, 신일정밀 법인 벌금 2,000만 원의 형벌을 선고했다.

신일정밀 노동자들이 2020년 7월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민신기·민성기 등은 하수인 최종순, 노조파괴 범죄 경력자 이강훈 노무사 등과 단체교섭 거부·조합원 협박·가족 협박·징계 협박·CCTV 이용 노동자 감시·게시물 이용 노조 활동 개입·쟁의 파괴 목적 금품 지급·대체인력 투입·폐업 예고 등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금속노조와 신일정밀지회는 6월 23일 강릉지원 앞에서 ‘신일정밀 민씨 일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재판 결과 지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석일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 잔혹한 노조 파괴 범죄를 규탄하고, 다시는 강릉에서 노조파괴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용석일 신일정밀 지회장은 “노조 파괴 범죄자들이 받은 형량은 2020

년부터 노동자들이 당한 대가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면서 “끝까지 싸운 신일정밀지회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옳았고, 저 민씨 일가와 하수인들이 저지른 불법이 명명백백하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용석일 지회장은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단죄한 투쟁경험을 바탕으로 신일정밀을 비롯한 강릉 등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강원도에서 더는 불법 노조 파괴 범죄가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결의했다.

용 지회장은 관심 두고 지지해 준 강릉 시민, 항상 연대하고 함께한 금속노조, 무엇보다 민씨 일가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투쟁한 신일정밀지회 조합원들에게 고마움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일정밀지회와 함께 법률 대응 활동을 벌인 강빈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관한 형벌이 너무나 약하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인정이 20%를 넘지 않는다. 기소, 형사처벌은 한 자리 수준이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지키는 결과가 나온 건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꼬집었다.



가 부당노동행위 기자회견

강빈 변호사는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다 이겨내고 투쟁까지 승리하기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신일정밀지회가 내디딘 한걸음은 강원도를 넘어 전국 금속노조 동지들에게 든든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강빈 변호사는 “이번 부당노동행위 선고 결과는 신일정밀지회 조합원 덕분이다”라며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시작하자마자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 대응해서 이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부당노동행위 증거, 증거물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직 지부 편제를 하지 못한 신일정밀지회 담당 임원인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신일정밀지회 조합원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해 쟁취한 안전한 현장, 회사와 동등하게 대화하는 노사관계를 지킬 것이다”라며 “다시는 조합원들이 서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신일정밀 지회에 관한 특별한 애정이 있다”라고 천명했다.